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0월 미 기업 일자리 4만2천개 추가... 일부 안정세

[뉴욕/뉴저지]

- Bloomberg: 민주당 뉴욕시장과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당선

[트럼프 행정부]

- WSJ: 미 의원들 장기 셧다운 종결 모색

[무역전쟁]

- Bloomberg: 오늘,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이슈 구두 논쟁
- WSJ: 미국 수입품의 거의 절반이 높은 관세 적용돼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 총리, 5년 내 23조 9천억 달러 경제 규모 돌파 전망
- Reuters: WEF 수장, “글로벌 경제에 3가지 버블 가능성” 경고

[에너지]

- YahooFinance: 유가 안정세...미국 재고량 및 공급 전망 주목
- WSJ: AI, 소형 고가의 설비 제조업체에 활력 불어넣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도요타, 미국 관세 역풍에도 영업이익 상향 조정
- YahooFinance: 맥도날드, 미국 매출 예상치 상회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mpanies Added 42,000 Jobs in October, ADP Data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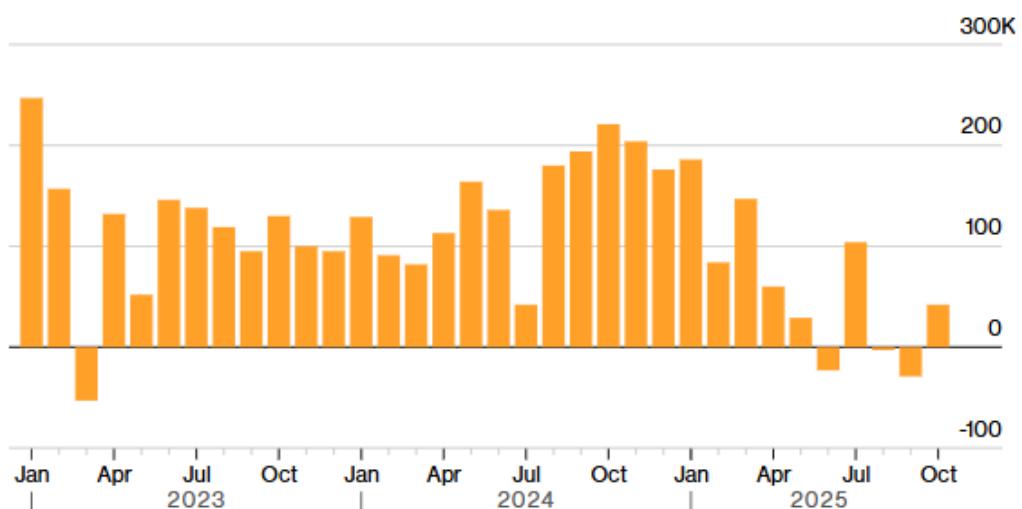
10월 미 기업 일자리 4만2천개 추가... 일부 안정세

- 미 기업들의 고용이 10월 들어 증가해 지난 2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일자리 시장이 일부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9월에 2만9천개로 하향 조정됐다가 10월 들어 민간 일자리가 4만2천개로 증가했다고 관련 조사 기업 ADP가 발표했다.
- 최근 연방정부의 일자리 지표 공백 속에서 발표된 이번 수치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US Private Job Growth Picked Up in October

ADP data show 42,000 advance after declines in prior two months

■ Change in US private payrolls



Source: ADP Research

Bloomberg 기사

[뉴욕/뉴저지]

Bloomberg: Democratic Victories Give Party a Roadmap for Beating Trump

민주당 뉴욕시장과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당선

- 뉴욕시장과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민주당이 예상외는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다.
-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그로서리 비용과 주택 가격 등 서민들의 생활비 문제에 집중하고 트럼프의 비인기 정책들을 거부함으로 작년의 패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바꿔말해 이번 승리는 바로 1년이 된 대통령/상원/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흔들렸던 사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뉴욕시 시장에 당선된 34살의 남아시아 출신 Zohran Mamdan가 민주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의 정책이 뉴욕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와 트럼프는 정책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Lawmakers See Hope for Ending Record-Setting Shutdown

미 의원들 장기 셧다운 종결 가능성 모색

-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정부의 장기적인 셧다운을 종식시키기 위한 양당의 합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John Thune은 임시 기금과 연방 부처들의 예산안을 함께 결합하고 오바마 보험법에서 만료되는 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발표했다.
-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수백만명의 식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 한편 트럼프는 공화당에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공화당을 우회해 연방 정부를 가동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WSJ 기사

[무역전쟁]

Bloomberg: All Eyes on the US Supreme Court as Trump Tariffs Set for Debate

오늘,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이슈 구두 논쟁

- 오늘 수요일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의 합헌 여부 관련해 구도 변론이 시작된다.
- 핵심은 트럼프가 전세계 수입품에 대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이뤄졌느냐 여부다.
-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국가안보긴급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는 것 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통령의 권한 사용이 과도했고 의회만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제 상거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현재 대법관 중에 대통령이 지명했던 법관 3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판결에는 올해 말 이후까지 진행되어 수주 동안 심지어 수개월 동안 소요될지 불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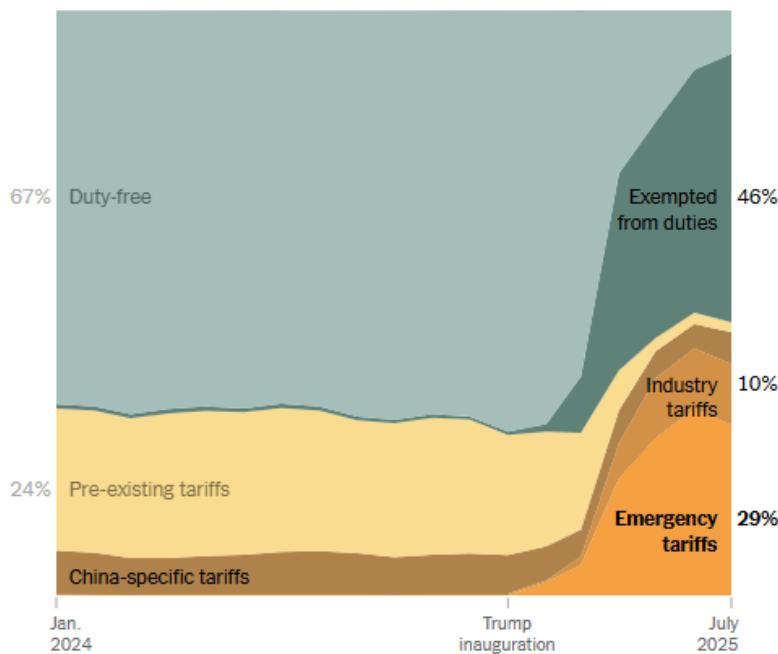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Almost Half of U.S. Imports Now Have Steep Tariffs

미국 수입품의 거의 절반이 높은 관세 적용돼

- 최근 뉴욕타임즈가 연방 통계 데이터를 분석할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거의 절반이 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현재 트럼프 관세는 대법원의 심리에 들어갔는데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권한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관련 조치는 무효화될 수 있다.
- 트럼프가 사용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바탕으로 한 관세 부과로 미 전체 수입품의 약 29%가 이 권한의 관세 부과를 적용 받고 있다. 올해 경제 권한법으로 거둬들인 수입품 관세 수입은 3천억 달러다.
- 현재 미국 수입품의 90% 이상이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즉, 올해 관세를 발표했거나 첫 임기 때 발표한 것, 또는 일부 품목에 일시적으로 면제된 포괄적인 품목도 이에 포함된다.

Share of U.S. imports subject to different trade rules



Source: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trade data. The New York Times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Premier Says Economy to Surpass \$23.9 Trillion in Five Years**중국 총리, 5년 내 23조 9천억 달러 경제 규모 돌파 전망**

- 중국 총리는 중국 GDP가 5년 내에 23조 9,0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4% 명목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시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국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하락으로 명목 GDP 성장률은 둔화되었다.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은 소비 지연, 부채 부담 증가 등 소비 약화와 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특히, 전기차,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에서 과도한 경쟁을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회복하고 임금 상승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한편 글로벌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Reuters: World Economic Forum chief warns of three possible 'bubbles' in global economy

WEF 수장, “글로벌 경제에 3가지 버블 가능성” 경고

- World Economic Forum의 책임자 Borge Brende는 “세상은 금융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해 3가지 가능성이 있는 버블이 있다”고 경고했다.
- 바로 최근 AI에 대한 버블 우려로 증시의 기술주 종목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 그는 3가지 버블 가능성을 말했는데 1) 크립토 버블, 2) AI 버블, 3) 각 정부의 부채 버블을 지목했는데 브라질의 상 파울로를 방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정부들의 부채 또한 지난 1945년 이래 이같이 과중한 규모는 없었다.
- 한편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이 같은 AI 발 증시 하락이 그동안 급등에 대한 조정으로 보고 있다. 신중한 상황이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라고 말한다.

Reuters 기사

[에너지]

YahooFinance: Oil Steadies as Traders Weigh US Stockpiles and Supply Outlook

유가 안정세...미국 재고량 및 공급 전망 주목

-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속에서 안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 서부텍사스산증질류는 배럴당 약 60달러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지난주 초부터 2달러 폭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브렌트유의 경우 OPEC 생산 확대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다면 14% 하락했다.
- 한편 미국 원유 재고는 지난주 650만 배럴 증가해 7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 전문가들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공식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으며, 재고 증가, OPEC 생산 확대, 러시아 제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유가 등락을 좁은 범위에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YahooFinance 기사

WSJ: AI's Power Rush Lifts Smaller, Pricier Equipment Makers AI, 소형 고가의 설비 제조업체에 활력 불어넣어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들이 빠르게 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이지만 가격이 높은 발전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으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대형 천연가스 터빈은 공급 부족과 긴 건설 기간으로 한계가 있어 데이터센터들은 소형 터빈 및 엔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소형 발전 설비는 대형 터빈보다 비용이 높고 배출량이 많지만 모듈형 구조 덕분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설비 제조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충을 검토하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Toyota raises yearly profit forecast despite an expected \$9 billion hit from U.S. tariffs

도요타, 미국 관세 역풍에도 영업이익 상향 조정

- 도요타는 미국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전망을 3.2조 엔에서 3.4조 엔으로 상향했다.
- 도요타의 매출은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했으나, 9월 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전년 대비 28% 하락했다.
- 도요타는 미국 관세로 1.45조 엔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일본에 역수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 환율 역풍으로 당분간 수익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다.
- 한편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전기차 라인업의 한계로 중국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YahooFinance: McDonald's US sales top forecasts as it continues value push amid 'challenging environment'

맥도날드, 미국 매출 예상치 상회

- 맥도날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치 추구를 지속하며 예상치를 뛰어넘는 미국 매출을 기록했다.
- 미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 글로벌 매출은 3.6% 증가했다.
- 맥도날드 CEO는 일상적인 가치, 합리적 가격, 매력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스낵랩을 재출시하고 일부 세트 메뉴 가격을 가맹점주들과 합의하며 가치 추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YahooFinance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